

코로나 타격 농수축산물 판로 뚫기 안간힘

전남도, 군부대 등 연계 마케팅
쇼핑몰 '남도장터' 온라인 판매
꾸러미 세트 출시 특판 성과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 지원

뿐만 큰 인기를 끌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학교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생산농가를 돕기 위해 긴급 편성한 이번 생방송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착한 소비에 힘입어 지난 8일 하루 동안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1000만원(343개)을 포함 2000만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개학이 지연되면서 학교급식에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친환경식재료를 육군 31사단과 장성군 소재 상무대, 공군 제1전투 비행단 등 군장병 급식과 꾸러미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 160여개 점포와 연계해 9일부터 15일까지 전남산 대파 110t에 대해 특판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을 활용해 전남도가 직접 운영한 쇼핑몰 '남도장터'와 G마켓, 옥션, 우체국 쇼핑몰 등을 연계해 오는 16일까지 전남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에 대한 판촉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남도장터'는 최근까지 총 3억여원의 특판 매출을 포함해 1분기 총 5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627개 업체 6254개 상품이 입점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도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농업 및 농식품 기업의 수익증대와 판로개척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판매 지원에 나선다.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은 10일부터 '온라인 판매(B2C) 활성화 프로모션' 사업으로 우체국쇼핑과 네이버스토어에 박람회 전용관을 개설

해 2만원 이상 구매시 최대 5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온라인 B2B전문기업 (주)은체널과 제품판매 및 프로모션 홍보 협약을 체결했다. 전남장조경제혁신센터와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한 기업도 참여한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온라인 개학 발표에 따라 친환경 농가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착한 소비운동이 농어민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며 "선제적인 판촉행사 전개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부터 전남 전지역 오존정보제 시행

휴대폰 문자 서비스 무료 제공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15일)부터 6개월간 도내 전 지역에 오존정보제를 시행한다. 오존정보제는 오존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한 경우 신속하게 주의보를 발령해 도민의 생활환경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다. 1시간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인 경우 '주의보', 0.3ppm 이상인 경우 '경보', 0.5ppm 이상인 경우 '중대 경보'를 발령한다. 오존은 자동차, 공장배출가스 등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이 햇

빛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된 물질로 주로 5월부터 9월까지 햇빛이 강한 오후에 많이 발생한다. 전남도는 현재 도내 모든 시군에 39개 도시대기측정소를 운영해 오존농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오존주의보를 64회 발령한 바 있다. 오존은 두통과 기침, 눈 자극, 폐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어린이 등은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오존 경보 발령을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로 받기를 원하는 도민은 전라남도 대기질정보시스템(air.jihe.go.kr)에 신청하면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 사업
전남도 법인·사업체 공모
업소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



코로나19 극복 수산물 직거래 장터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도내 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최근 수산물 직거래 행사를 갖고 우럭과 전복 등 300만원 상당의 수산물 100여 상자를 매입했다.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도내 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최근 수산물 직거래 행사를 갖고 우럭과 전복 등 300만원 상당의 수산물 100여 상자를 매입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축산ICT 융·복합' 140억원 투입

컨설팅 통해 182개 농가 확정
원격제어 자동화 장비 등 지원

전남도는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축산분야 ICT(정보통신 기술) 융·복합 사업에 140억 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올해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316개 농가를 대상으로 농립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의 컨설팅을 실시, 182개 농가를 최종 확정했다. '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현대화된 시설이 설치됐거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 예정인 축사에 대해 내·외부 환경조절 장비와 원격제어 자동화 장비를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한 비용을 지원한 사업이다. ICT 기술이 도입된 축사는 자동화 시설을 활용해 개별 정보와 건강 상태, 축사

환경정보 등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 사료 급여량과 노동력을 줄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도 가능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스마트 축산 도입 시 ▲한우는 평균 공태일이 60일에서 45일, 송아지 폐사율이 10%에서 5%로 감소 ▲젖소는 하루 평균 착유량이 40kg에서 43kg으로 증가, 도태율은 5%에서 1.5%로 감소 ▲돼지는 연간 모돈 출하두수가 17.8두에서 23.7두로 증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스마트 팜이 축산농가 생산성 증대에 크게 도움을 주는 만큼 농가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선정된 농가는 기간 내 사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대출이자 지원

전남도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3년 동안 5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심사기준을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이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면적 85㎡이내(읍면지역은 100㎡ 이내)며, 소득기준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만 12세 이하 자녀 1명 포함)인 가구로, 주택가격은 3억원 이하로 신혼부부와 동일하나 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정책기획관은 "2030세대가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가운데 주거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전남도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걱정을 덜어주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지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미취업 청년 1000명 6개월간 300만원 지원

전남도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모두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14일 "코로나 19로 인한 취업 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청년 구직활동수당 3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실직 청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사업 규모를 1000명까지 확대, 전남도 일자리통합정보망(job.jeonnam.go.kr)을 통해 모

집에 나간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한 만 18-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중 최종학력 졸업·수료·중퇴 후 2년을 경과하고, 중위소득 150% 미만(4인 가구 기준 712만4000원)인 자가 대상이다. 지난해 참여자는 올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중앙부처와 타 자치단체 유사사업은 지원 종료·중단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지원금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현금화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로 지급되며, 구직활동을 위한 교육·

도시구입비와 시한 응시료, 면접 준비 비용, 교통·식비 등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금 일부(1회차 지원금 중 30만원)를 전남지역화폐로 지급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힘을 보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참여자들의 구직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병행 지원하고 지원금 수급 기간 중 도내 취업에 3개월간 근무 시 구직성공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

고의사기! 허위인원! 허위청구! 과잉진료! 확대수리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동부화재 | KOREAN | SGI서울보증 | AXA | AIG | NH농협손해보험